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6월 18일
ISSN 1976-0507 Vol. 3 No. 23

중국의 지역별 경제성장: 최근의 추이 변화

이 장 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팀장 (cklee57@kiep.go.kr, Tel: 3460-1070)

배 승 빈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sbpae@kiep.go.kr, Tel: 3460-1057)

- ▣ 중국의 각 성(省)과 시(市) 통계국이 4, 5월 두 달에 걸쳐 2009년 1/4분기 해당 지역의 경제지표를 발표하였음.

 - 안정적인 내수 증가와 정부의 투자지출 확대정책으로 전국 31개의 성, 시 중에 22개 지역이 전국 평균 GDP 증가율 6.1%를 상회하였고, 그 중 11개 지역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음.
- ▣ 발표자료를 종합해보면, 경제성장률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상에서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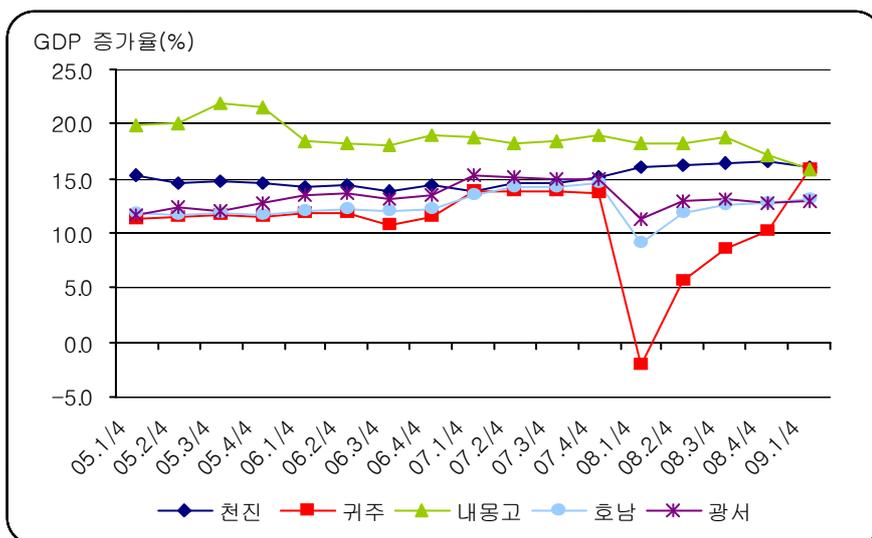
 - 2009년 1/4분기 동·중·서부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산출해보면, 각각 7.2%, 7.9%, 10.6%로 중·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런 경향은 도시 고정자산투자와 소비 부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 또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저조한 10개 지역에 상해, 절강, 광둥, 북경 등 동부지역의 4개 주요 성, 시가 포함되었음.

 - 상해는 전년동기대비 3.1%로, 11.5%를 기록했던 2008년 1/4분기보다 8.4%포인트 하락하였고, 절강, 광둥, 북경도 각각 3.4%, 5.8%, 6.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와 국내 소비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는 중·서부지역의 고성장과 동부지역의 저성장(西高東低)이 지속될 전망이다.
- ▣ 그러나 최근 중·서부지역의 고성장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기초건설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바 크므로 그 지속성에 한계를 지님.

1. 최근 현황

- 중국의 각 성(省)과 시(市) 통계국이 4, 5월 두 달에 걸쳐 2009년 1/4분기 해당 지역의 경제지표를 발표하였음.
 - 안정적인 내수 증가와 정부의 투자지출 확대정책으로 전국 31개의 성, 시 중에 22개 지역이 전국 평균 GDP 증가율 6.1%를 상회하였고, 그 중 11개 지역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 31개 성, 시 중에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인 곳은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한 천진(天津)이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산서성(山西省)으로 -8.1%를 기록함.
- 2009년 1/4분기에 GDP 증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위 11개 지역의 성, 시는 대부분 중·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중부지역은 호남(湖南), 안휘(安徽), 호북(湖北), 강서(江西) 등 4개 지역이, 서부지역은 귀주(貴州), 내몽고(內蒙古), 광서(廣西), 사천(四川), 섬서(陝西) 등 5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부는 환발해 지역의 천진과 연해지역의 강소성(江蘇省) 등 2개 지역에 불과함.

그림 1. 경제성장률 상위 5개 지역



자료: CEIC.

- 2008년 1/4분기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귀주의 동 기간 GDP가 -2%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천진, 귀주, 내몽고, 호남, 광서 등 경제성장률 상위 5개 지역은 전국 평균 GDP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음(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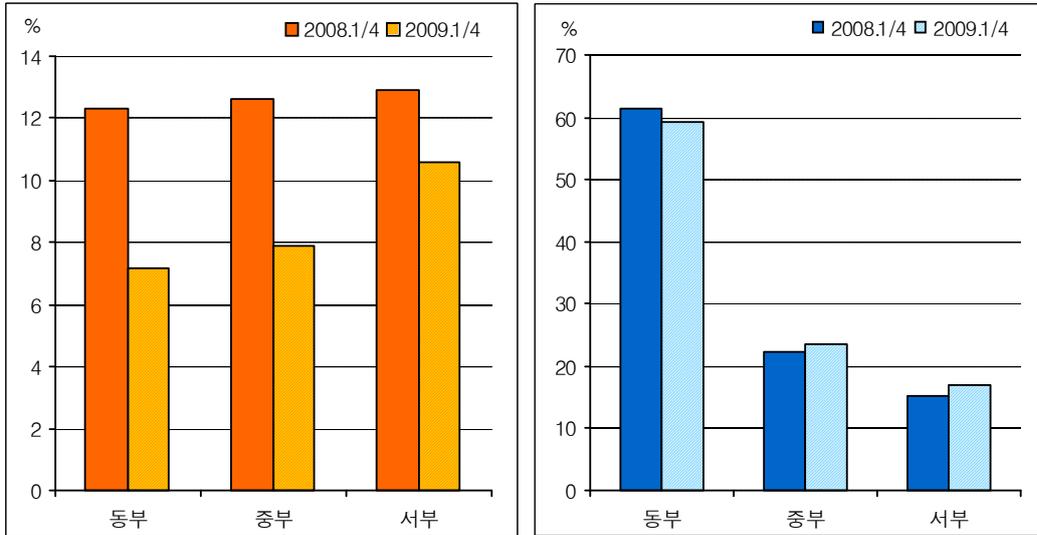
- 2009년 1/4분기의 GDP 증가율이 낮은 하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전국 평균 6.1%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 하위 10개 지역 중에 동부지역은 상해(上海), 절강(浙江), 광둥(廣東), 북경(北京) 등 4개 지역이, 중부는 산서, 흑룡강(黑龍江), 하남(河南) 등 3개 지역이, 서부는 영하(寧夏), 감숙(甘肅), 신강(新疆) 자치구 등 3개 지역이 포함됨.
- 하남성과 신강 자치구의 GDP 증가율이 각각 6.6%와 6.5%로 전체 GDP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 상위 11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7~9%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요녕(遼寧), 허북(河北), 산둥(山東), 복건(福建), 해남(海南) 등 동부 5개 지역과 중부 지역의 길림(吉林), 서부지역의 칭하이(青海), 중경(重慶), 운남(雲南), 서장(西藏) 등이 이에 해당함.

2. 추이 변화의 주요 특징

가.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

- 중국의 각 지방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경제성장률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각 성, 시의 GDP 금액이 중국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동·중·서부 지역의 2009년 1/4분기 GDP 증가율을 산출해보면, 각각 7.2%, 7.9%, 10.6%의 성장률을 나타냄(그림 2 참고).
-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2008년 1/4분기의 동·중·서부지역 GDP 증가율이 각각 12.3%, 12.6%, 12.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동부와 중·서부, 특히 서부지역과의 성장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2. 지역별 GDP 증가율과 전체 GDP 대비 비중



주: 1) 동부는 요녕, 하북, 복경, 천진, 산둥, 강소, 절강, 상해, 복건, 광둥, 해남 등 11개 지역, 중부는 흑룡강, 길림, 산서, 하남, 호북, 강서, 안휘, 호남 등 8개 지역, 서부는 섬서, 감숙, 청해, 내몽고, 영하, 신강, 사천, 중경, 운남, 귀주, 저장, 광서 등 12개 지역을 포함함.
 2) 동·중·서부 지역의 GDP 증가율은 각 성 통계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財經』에서 가장 평균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CEIC; www.caijing.com.cn

- 중국 전체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중·서부지역은 각각 23.5%와 17.1%로 전년동기보다 1, 2%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동부지역은 61.5%에서 59.4%로 감소하였음.

■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의 차이는 소비와 투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남.

- 2009년 1/4분기 동·중·서부지역의 소비 증가율은 각각 15.7%, 19.5%, 18.8%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동시에 동부와 서부지역은 약 3% 포인트의 증가율 차이를 보였음.

- 도시 고정자산투자에서 동·중·서부지역은 각각 19.8%와 34.3%, 46.1%의 증가율을 보여 동부와 중·서부 간에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으며, 특히 서부지역이 중부지역을 10% 포인트 이상 초과하였음.

○ 지난 사천성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원사업이 2009년 1/4분기 서부지역의 투자 증가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도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43.9%로 전국 평균 28.8%를 훨씬 상회함.

■ 주요 경제지표 상에서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의 역전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9년 1/4분기에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표 1 참고).

- 특히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등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 프로젝트 시행으로 도시 고정자산투자에서는 2004년부터 역전이 시작되어 동·중·서부지역이 각각 27.1%, 32.9%, 30.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표 1. 지역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4
GDP 증가율	동부	13.3	14.3	13.5	14.2	14.2	11.4	7.2
	중부	10.7	12.8	12.5	13.1	14.1	13.1	7.9
	서부	11.8	13.2	13.4	13.4	14.5	12.5	10.6
소비	동부	13.3	14.3	25.9	15.1	17.1	21.4	15.7
	중부	10.8	14.3	18.9	15.0	18.2	23.1	19.5
	서부	12.9	14.5	30.4	14.8	18.0	22.3	18.8
도시 고정자산투자	동부	34.0	27.1	24.2	20.3	21.0	21.3	19.8
	중부	28.2	32.9	31.1	33.5	33.4	33.5	34.3
	서부	29.8	30.1	29.8	26.3	28.2	26.7	46.1
수출	동부	34.6	35.9	28.6	26.7	24.7	15.5	-19.6
	중부	31.8	32.3	26.6	34.0	35.9	33.8	-25.3
	서부	37.9	26.7	25.1	32.5	37.9	39.0	-16.1

주: 1) 동·중·서부지역의 GDP 증가율이 해당 연도 전국 평균 GDP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를 잡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2) ■ 부분은 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경제지표 증가속도가 역전되는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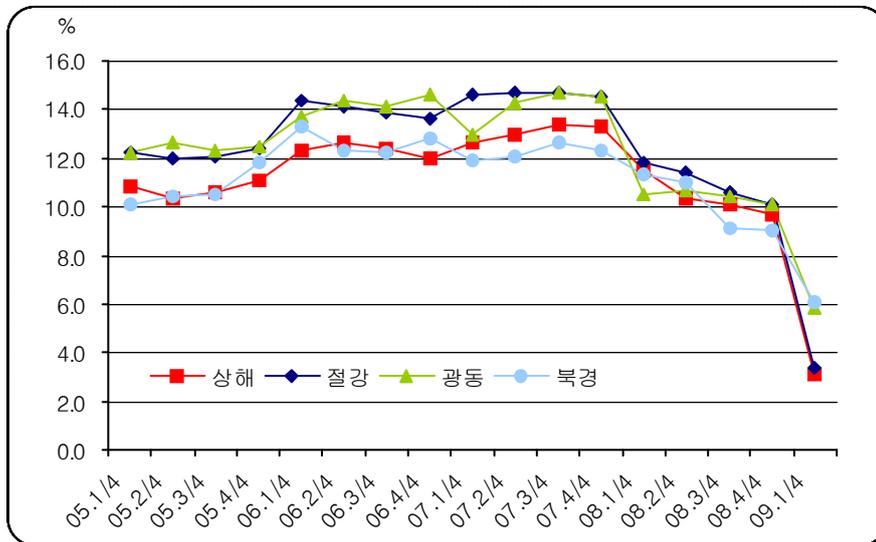
자료: 「实事求是」(2009,6,5); CEIC: www.stats.gov.cn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서부지역이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서부지역의 대외의존도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로 중·서부지역 역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동부지역 특히 상해, 절강, 광둥 일대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악영향은 여타 지역보다 덜한 상황임.
- 또 중국이 발표한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서 중앙정부는 2009년 4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3,000억 위안의 자금을 이미 집행하였으며, 지역별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중·서부지역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알려짐.
- 각 지방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2009년 1/4분기에 집행한 1,300억 위안 중에 감속성에 41.1억 위안, 광동성에 21억 위안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나. 동부지역 주요 성, 시의 경제성장 둔화

-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저조한 10개 지역에 상해, 절강, 광둥, 북경 등 동부지역의 4개 주요 성, 시가 포함됨(그림 3 참고).
- 상해는 전년동기대비 3.1%로, 11.5%를 기록했던 2008년 1/4분기보다 8.4%포인트 하락하여 산서성 다음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절강성과 광둥성도 각각 3.4%와 5.8%로, 전년동기 10.1%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북경은 9.0%에서 6.1%로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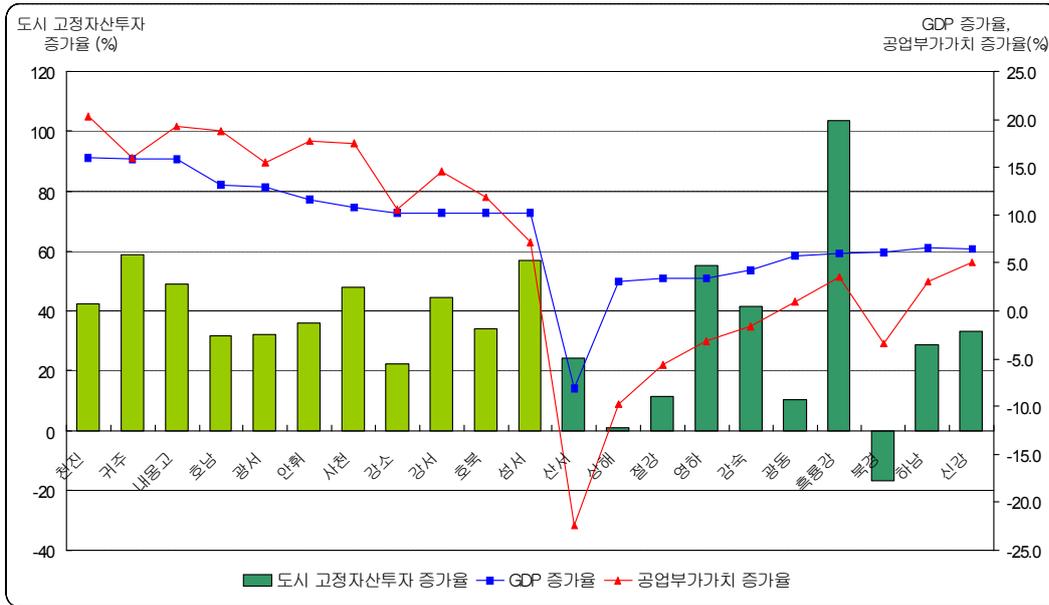
그림 3. 동부 지역 주요 성, 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CEIC.

- 동 지역들은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에서도 매우 저조한 증가율을 보임(그림 4 참고).
- 도시 고정자산투자에서 상해와 북경은 각각 0.9%와 -16.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절강성과 광둥성은 각각 11.3%와 10.3%로 하위 10개 지역에 포함되는 기타 성, 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 공업부가가치는 0.9%의 증가율을 보인 광둥성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는데, 상해는 -9.7%, 절강은 -5.6%, 북경은 -3.4%를 기록하였음.

그림 4. 주요 지역별 GDP, 고정자산투자 및 공업부가가치 증가율(2009년 1/4분기)



주: ■는 천진, 귀주, 내몽고, 호남, 광서, 안휘, 사천, 강소, 강서, 호북, 섬서성으로 1/4분기 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11개 지역이며, ■는 산서, 상해, 절강, 영하, 감숙, 광둥, 흑룡강, 북경, 하남, 신강 자치구로 1/4분기 GDP 증가율이 가장 낮은 10개 지역임.
 자료: CEIC.

- 동부지역의 2009년 1/4분기 고정자산투자와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8%와 5.1%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서도 상해, 절강, 광둥, 북경 4개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상황임.
- 최근 동부와 중·서부 지역 모두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부지역의 경우, 민간투자 감소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총투자를 견인해왔던 동부지역의 부동산 개발투자와 제조업 부문이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1/4분기 동부지역의 광둥성, 복건성, 북경의 부동산 개발은 각각 -30.2%와 -25.4%, -15%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음.
- 제조업 투자도 전년동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 절강성의 경우 -1.9%로 전년동기보다 20.8%포인트 감소하였음.

3.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와 국내 소비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는 중·서부지역의 고성장과 동부지역의 저성장(西高東低)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임.
- 그러나 최근 중·서부지역의 고성장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한 기초건설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바 크므로 그 지속성에 한계를 지님.
 -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4조 위안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2008년 4/4분기 1,000억 위안과 올해 1/4분기 1,300억 위안을 포함하여 총 3,000억 위안의 투자자금을 집행하였음.
 - 정부의 연초 계획에 따르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 중앙정부가 집행하기로 계획된 투자규모는 약 9,080억 위안으로, 올해 약 7,000억 위안이 더 집행되어야 함.
 -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상당부분 중앙의 추가적인 투자규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향후 중·서부지역의 고속성장 지속 여부는 가계 소비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내수 부양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가전하향(家電下鄉)”, “자동차하향(汽車下鄉) 등의 정부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중·서부지역은 도시보다 농촌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수익률 하락과 실업인구 증가 등은 향후 가계의 소득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소비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님.